

# 씩은 제 뿌리를 믿어야 푸르르게 살 수 있어요

## 27면에서 계속

서 바로 각각각색의 증생들에게 응신이 돼 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체가 없으면서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가는 아축이니 이 아축불 자체가 전체를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몸속에 있는 자생증생들을 잘 제도하려면, 아가 얘기했듯이 그런 업보나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이런 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식을 지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나오는 구명에다 다시 입력을 한다 면 앞서의 팔자 운명 모든 애고가 사라지고 만다 이겁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이 다 지수화풍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몸쳐졌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지수화풍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서도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 분한테, 각자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에 의해서 모두 쓸 수 있는 것을 관습이나 습에 따랐고 애고에 따랐고 욕심에 따랐기 때문에 그 한생각을 자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몸속의 자생증생들 속에서 벗어나고 들깨는 어항에서 벗어나거라." 하셨는데 그건 공기 주머니에서 벗어나라 이 소리죠.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마음들이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너희는 그 마음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아라." 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삼라만상 이 법체를 다 한 찰나에 둘러보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도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바로 부처님의 뜻도 알 뿐만 아니라 큰스님네들의 법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리를 아신다면 본래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갖 것이 없거든요. 이 욕심이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욕심을 벗고 이 세상에 또 출현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죠. 물론 뱀의 모습도 될 수 있고 개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개같이 살았으면 개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았다면 사람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요만큼도 예누리가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예가 있죠. 공동묘지에 가니까 늙은이 젊은이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고 늙은이 애도 없고 모두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도의 진리를 너무나 가깝게 두고 계시기 때문에 못 찾는 겁니다. 이 몸뚱이 속의 자생증생들이 자기를 움켜쥐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온통 욕심이 나게 하고 분기가 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의 선장으로 다스려라. 다스리면서 내면에, 나오는 구명에다 다시 넣어라." 이런 겁니다. 나오는 구명에다 다시 맡겨 놓지 않는다면 그 업보는 없어질 수가 없고 그 번뇌 망상은 녹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껏 지금 편안할 때인데... 하늘이 무너지고 조각조각 나서 가루가 된다 한들 뭐가 속이 상할

적을 해서 붙여야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 아니면 의지를 못하죠. 지금 이 밝고 밝은 세상에, 마음을 발전시켜야 할 세상에 맡깁니다. 마음을 발전시켜야만이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어디에 세워 놔도 뒤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가정을 어디에 세워 놔도 뒤지지 않을 것이고, 어느 돌 위에 동그마니 세워 놔도 살 수 있게 되어 멋진 삶의 보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물질계에만 치달고 있어서 정신계는 아주 부족합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동등해야 이 세상에 혼란이 안 올 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들에게도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애들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

서 (뿔뿔을 만지시며) 이 물레가 어머니,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몇 해가 됐는지, 이런 거를 연구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가는 거는, 보고 알았으면 갖다가 먹을 줄 알고, 대치해 놓을 줄 알고 옮겨 놓을 줄 알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만이 이게 도다 이겁니다. 그러니만큼 도가 아주 어렵고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한 찰나를 뒤집어보지 못하고 그 업식에 의해서, 습관 습성에 의해서 영 고쳐지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상스럽다고만 생각할 수밖에

주 무시하죠? 그러나 통신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하답니다.

아주 난폭하고 공복도 안 하고 등롱등롱 주면 갖다가 삭혀 버리고 술 먹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아들을 가진 신도가 있었는데, 지꾸 따뜻하게 부드럽게 해 주면서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놓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으로 전답이 돼 가지고 마음이 달라지면서, 하루는 항아리를 뒤고 있는데 "피곤하죠, 엄마!" 그러면서 "내가 좀 들어 드리고 내가 좀 뒤야 드릴게." 하고 그날부터 착해져서 지금까지 효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중 박수)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할 것은, 생활 속에서 남편이 잘못했다거나 괴롭히더라도 말로 다 아웅다웅하고 싸우지 마시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행해 주시면서 거기다 맡겨 놓으세요. 남편을 막론해 놓고 부부기간에도 그렇고 부모자식기간에도 그렇고 모두 그렇습니다. 거기다 맡겨 놓고 화복하고 질서 있게 행하세요. '모든 게 내 뜻이야. 내가 없다면 상대가 없을 거니까 잘했던 못했던 내 뜻이야.' 하고서 자기 뜻으로 돌리면서 부드럽게 말을 해 주고 부드럽게 대해 준다면 바로 전기가 통하듯이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과거 무심과 지금 현재 유심이 같이 돌이 아니게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화복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 주고 그렇게 되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도 중에 많이 있습니다. 본원도 그렇고 지원도 다 그렇게 해서 살고 있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천도를 했습니다만 내가 제주도에서 처음에 와 보니까요, 그 4·3 분규 아시죠? 4·3 분규! 저쪽 사람들이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제주도 사람들을 끌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이쪽을 죽이고 저쪽 사람들 이쪽을 죽이고, 그냥 아주 샌드위치기 돼서 숨으려고만 애를 쓰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죠. 땅속으로 돌 틈으로 모두 은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죽은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기 한 때 뱀이 무지하게 많았죠? 뱀 많았습니다. 그렇게 돌 틈으로 들어가고 굴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죽으니까 그 영혼들이 다 그냥 흰백산을 해서 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탄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 제주도에서 많은 곤욕을 치루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뱀이 집 가로 막기 들어서요. 그러나 지금은 보려 해도 별로 볼 수 없죠? 어떻습니까?

대중: 예! (대중 박수)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4년 5월 29일 제주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도(道)가 아주 어렵고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다! ”

니까? 이 세상에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부처님 법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마음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주도 역시 형성될 때에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진 대전지세계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검은 대륙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거기에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져서 대우주를 형성시켰고, 우주를 형성시키고 별을 형성시키고, 별을 형성시켰으면 태양을 형성시키고 위성도 형성시키고, 우리 인간의 생명도 형성을 시키고 모두를 형성시켰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나처럼 나가기 때문에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한테 원력이 주어졌으니 바로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될 것인

니다. 우리는 신도가 오든 안 오든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날 위해서, 우리 승려들을 위해서 갖다 주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계에 물건을 사러 갈 때 물건을 사러 간 거지 돈을 가게 주인한테 갖다 주려고 간 게 아닙니다. 물건을 사러 갔을 때는 그 물건의 값어치가 되는 대로 돈을 내놓고 그 물건을 사 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돈 준 사이도 없고 저쪽에서 물건 준 사이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그러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그러하므로 부처님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법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도는 생활 속에 있는 거지 나를 떠나서 있는 것이 없고 마음을 떠나서 도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에 의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부

데 천지차이로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무슨 도개 비쳐뿔 날뿔이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믿더라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뭇잎들이 자기 뿌리를 안 믿고 탄 나무를 믿는다는 거나 탄 이름을 믿는다는 거나 탄 형상을 믿는 다 하면 에너지가 자기 나뭇잎으로 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소크라테스도 "너부터 알아라!" 했고, 달마 대사께서도 "너부터 알아라!" 했고, 모든 부처님들, 각 계각종 선지식들께서 다 "너부터 알아라!" 했습니다. 너를 모르다면, 과거의 너를 모르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거요. 과거의 너를 잡고 가야만이 무의 세계, 정신세계를 타파할 수 있는데,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를 모른 채하고, 즉 말하자면 자기 뿌리를 모른 채하고는 탄 싹, 탄 이름, 탄 형상을 믿고 온통 나를 살려 달라, 이사를 가는데도 잘 가게 해 달라, 죽게 돼도 내게 해 달라, 이러니 이게 될 법한 입말입니까?

그리고 정신계가 지금 물질계하고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지금 의학계에서도 병고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거든요. 어디서 온 줄을 알아야 대치를 할 텐데 어디서 온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학술적으로만 배웠으니까 말합니다. 누가 그 학술을 배웠느냐, 어떤 놈이 그 학술을 배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모두가 마음 빼놓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의학계에서도 30%, 많이 쳐야 40%밖에는 이끌어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 60%는 누가 끌고 갑니까? 모든 게 정신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심성계에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학자 여러분은, 얼른 쉽게 말해

엔 없죠.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너부터 알아라" 하니까 저놈 이상스런 말만 한다고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 보니 죽인 게 아쉽죠, 모두?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능력이 주어졌으니 그 그대로 한생각을 잘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청년들의 심문의 일이 어렵고 지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보시죠?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기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나? 아들이 오늘 학교를 간다더니만 안 가고 저녁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대하십시오? "오늘의 새끼야, 응? 공부하러 가했더니 어디 가서 퍼질러 다니면서 놀다가... 오늘 새끼!" 하고 그냥 노발대발하고 막 욕을 퍼붓죠? 그렇게 해서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된 거는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지 욕이나 말로 해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잘못된 거는 마음으로 고쳐야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걸랑 "아이구! 너 배고프지 않았니? 어디 가서 이렇게 자고 왔니? 어디 가서 이렇게 놀다 왔니? 용돈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해주면서 부드러운 행을 해 주면서 따뜻하게 해 주면서 안애다 맡겨 놓으라고요. 끌어 쓰는 용도는 다 달라도 전력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전력이 다 똑같듯이 아들의 주인공 뿌리와 내 뿌리가 돌이 아닌 까닭에 바로 '주인공! 저 아들의 마음이 저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은 천리만리라도 통합니다.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지 못하니까 아



**정정수에 2~3방울만...**

**불가 최초 관불 관육 전용의 물에 타서 쓰는 향탕수 개발!!**

# 관불수향 출시!!

## 灌佛水香

거룩한 불탄일을 맞이하여 능인향당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관불수향으로 성스러운 관불의식을 더욱 경건하고 향기롭게 누리십시오.

**관불수향 (약 20ml) 관불수향은 그 재료 자체가 피부보호 기능이 뛰어난 전단과 침향이 주 재료이므로 가격 : 120,000원**    **따로 스킨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부보습 효과와 이로운 요법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관불수향 출시 기념행사 1>**  
초파일 이전에 관불수향을 주문하시는 스님께서는 능인향당의 대표향인 **능인향 1통과 침향선향의 샘플**을 보내드립니다.

**<관불수향 출시 기념행사 2>**  
능인향의 우수성을 알고자 전화를 주시는 모든분들께 불가의 원향으로 제조한 고도로 순한 선향 샘플을 무료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관불수향의 주 재료**

- **침향** : 세계 3대 향침향, 사향, 용연향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향으로 불가에서 가장 신성시 하는 향이며, 사기를 풀어내고 인체의 기를 북돋아 주는 등의 약성이 뛰어나 동의보감이나 중국의 중약대사전 등에 그 약효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 **전단향** : 자기를 찢어내는 도끼날에조차 향기를 물린다고 하는 백단의 뿌리부분으로, 최초로 불성을 조성한 불가에서 가장 신성시 하는 신목 중 하나. 인도가 원산지로 위장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화장품이나 향료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된다.
- **자단향** :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불가에서 중요한 공양물로 여기는 향나무. 사기를 풀어내고 간의 열을 내리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나무결이 단단하고 아름다워 고급 조각 재료로도 이름이 높다.

**제작동기와 제작과정**

불가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인 관불, 관육의식은 전단과 자단 등 불가의 신목을 다려서 향수를 만들어 의식을 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방 이후 화학향이 발달하고 일제강점기에는 불가의 성지를 직접 찾지 못한 향수를 섞은 향들이 사용되면서 그 편리함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선향을 부러뜨려 사용하는 것으로 성스러운 일 할 향탕수를 대신하는 현상이 관행처럼 계속되어 왔습니다.

세백일 짝부터 향기를 끌어 관육준비를 하시던 예전 노스님들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 다스리다 지금 불가의 정향법도를 되살리고자 하는 불교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능인향당에서는 불가의 성지를 직접 찾아 초기 불가의 전통을 연구하고 확인작업을 하여 불가의 신목을 찾아내었고, 그 특성상 유성(雌性)이 많은 불가의 향목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수용성과 하면서 피부미용과 아토피 등에도 효능이 있는 백단 등의 향목을 첨가하는 등 7년여의 노력 끝에 전단과 침향, 백단 등 불가의 신성한 향기가 그대로 보존되면서 간단히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도 현대적인 관불, 관육 전용향탕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능인향당은...**

인연이란 이름으로 다가올 미래의 융화사회에, 최상의 공양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과 교류, 연구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능인향당은 인체에 가장 해가 적고 순수한 원향을 제조하여 2007년부터 국내시장을 시작하였습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침향을 원산지인 베나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여 공예품인 염주부터 복장공양물의 최고 결정체인 기념 등급까지 16등급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료 관련 국제 특허 3종과 불교용품에 관한 국내 특허를 다수 취득하였으며 인도와 캄보디아 등 불교의 성지를 직접 돌며 구한 원재료를 불가의 최고 공양물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불수향**이란  
**관불, 관육시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생수에 희석하여 전단향이 그윽한 향탕수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한 제품입니다.**

**사용법**

정정수에 1~2방울을 타서 희석하여 사용되 양은 가감할 수 있습니다. 2방울 정도면 세수대야 하나 정도를 희석할 수 있는 양으로, 1병으로 약 50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육이 끝난 후에는 향탕수를 버리지 마시고 제주들의 손을 씻게 하시면 좋습니다.**

**관불수향의 재료**

불가에서 신성시하는 신목인 5단 향목(침향, 전단, 자단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정향과백리향 등 5화에서 직접 추출한 향유를 소재로 하였습니다.

**지난 3년여에 걸친 신제품 실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대덕 큰스님들께 우선 이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능인향당 能仁香堂

본사 :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3663-6777    홈페이지 : www.nihwa.com    직영매장 : 서울 중로구 견지동 95-2 조계사 앞